



즉시 배포용: 2021년 5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의 유급 병가법이 코로나19 예방 접종에서 필요한 회복 시간을 보장함을 고용주에게 상기시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가 코로나19 백신으로부터 필요한 회복 기간이 주 유급 병가법(Paid Sick Leave Law)에 따라 보장된다는 지침을 모든 고용주에게 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이저 가족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미국인 중 48%가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하루 이상 몸이 불편할 시 출근을 하지 못할까봐 걱정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그룹에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히스패닉 성인의 약 2/3(64%)와 흑인 성인의 1/2 이상(55%)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신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물리치는 열쇠이며, 우리는 접종을 받는 데 필요한 모든 장벽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에 따르면 다음날 출근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두려움에서 접종을 피하는 개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뉴욕 주민은 없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 합니다. 노동부는 가능성이 낮지만 개인이 부작용을 경험하여 회복 시간을 필요로 할 경우 법에 의해 유급 병가로 간주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지침을 모든 고용주에게 발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와 팽팽히 싸우고 있으며, 지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이용 가능하며 모두가 빨리 접종을 받을수록 더 빨리 팬데믹을 이겨내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3월 12일에 Cuomo 주지사는 공공 및 민간 직원에게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한 시간을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률에 따라 직원들은 주사 당 최대 4시간이 부여되며, 직원이 취득 또는 발생한 다른 휴가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